

# 우리나라 庶民女の 日常服에 관한 民俗學的 研究 (조선조말~1950년대)

A Study on Everyday Wear of Korean Common  
Woman with Folklore

崇義女子專門大學 衣裳科

副教授 李柱媛

Dept. of Clothing Soong-Eui Woman's Junior College

Associate Prof.; Choo Won, Lee

## 目 次

I. 序 論	Ⅲ. 庶民女の 日常服의 各論
Ⅱ. 研究方法 및 庶民女服의  일반적  특징	Ⅳ. 結論 및 提言
1. 研究方法	參考文獻
2. 庶民女服의  일반적  특징	

## <Abstract>

From now, we've made a study of Korean Clothing about our Royal family's or high birth person's and made little of our plain folk's. Our traditional clothing is plain folk's clothing and that is our fundamental clothing, so plain folk's clothing has an important part in our life.

In this point, first we were concerned about the plain folk woman's clothing in the plain folk's clothing and it consists of the way of ethnographic method like listening from the old about their contant living wear-daily wear.

This research covers the time from the end of the Yee-Dynasty to 1950's and the place, each province where the primitive dwellers still live and respondent's age range is about from 60 to 80.

In the viewpoint of our climate and construction, women should be over-worn an underwear and they have worn the underwear for the purpose of their heating and the inflating of the skirt. The end of the Yee-Dynasty, high society person wore underwear 7-8 layers thick and also the sow society person wore it 3-4 layers thick.

The Plain folk woman clothing's basic system is the skirt and Korean jacket and dari-sok-got, sok-sok-got, pants, dan-sok-got as an underwear, and Korean socks and Korean shoes(straw shoes) are added.

\* 본 논문은 승의여자전문대학 학술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This research discusses these clothings by dividing them into each part and enlighten the peculiarity, shape, cloth and how to construct and especially about the difficult-making Korean jacket, we handled the method of a rough guess sizing.

As the result, we found that each province had a similar peculiarity in the general clothing but they had a different cloth name and a wearing method. Especially, An-dong an Eum-sung, they'd worn their own traditional wear, sal-chang-gojaengiee, We made a good product of rough guess sizing data those have not been known.

## I. 序 論

오늘날 각 나라에서는 자기 민족의 뿌리를 찾아 傳統文化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민족의 傳統文化를 알기 위해서는 민족의 역사와 사물을 바탕으로 하는 民俗學 研究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服飾文化에 있어서의 民俗學의 研究는 여러가지 文化史的인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服飾制度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조말까지 우리의 固有服飾과 中國服飾과의 二重構造를 갖고 있었으나<sup>1)</sup>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전승되어온 古代의 패턴이 있었으니,<sup>2)</sup> 이것이 곧 대다수의 庶民들에 의해 이어져온 固有服飾인 庶民服이라 하겠다. 여기에서의 庶民이란 良人으로서 아무 벼슬이 없이 農·工·商에 종사했던 平民階級의 일반백성을 가리킨다.

우리의 固有服飾이 곧 庶民服飾이요, 庶民服飾이 곧 우리의 基本服飾이며 傳統服飾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부분 王家나 士大夫家 중심이었고 일반 庶民들의 服飾에 관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항상 가까이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인식치 못한 데다가 種類가 다양하지 못하여 연구의 限界性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傳統服飾文化는 우리가 발굴·보존하고 올바르게 계승시켜야 하므로 庶民服에 대한 民俗學의 研究는 대단히 중요하다.

本研究는 庶民女의 日常服을 중심으로 현재 老人들로부터 전해들은 口傳資料를 통한 民俗學의 方法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女服은 男服보다 保守性이 강해 쉽게 변하지 않으므로 古來制度가 더 많이 전해왔을 것이며,<sup>3)</sup> 生活服인 日常服은 변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고유의 正統性이 지속적으로 간직되었을 것이다. 本研究의 시대

범위는 현재 살아있는 老人들로부터 전해들을 수 있는 것이 그들의 父母代까지이므로 조선조말을 上限期로 하고, 固有服飾의 着用 下限期는 1950년대까지로 했다.

여러 면으로 미흡한 研究가 되었겠지만 우리의 傳統服飾文化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전승하며, 나아가서는 韓國服飾史를 연구하는 데 이바지되기를 바란다.

## II. 研究方法 및 庶民女服의 일반적 특징

### 1. 研究方法

#### (1) 民俗學 측면에서의 先行研究

韓國服飾에 대한 民俗調査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은 1927년 日人 村山智順에 의해 조사된 「朝鮮의 服裝」<sup>4)</sup>이다. 그 이후로 1968년에서 1980년에 걸쳐 文化財管理局에서 조사된 「民俗綜合調査報告書」<sup>5)</sup>가 있으나 服飾에 관한 것은 一部分이다. 1958년에 다시 文化財管理局에서 조사된 「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衣生活篇)」<sup>6)</sup>가 있는데 이의 내용은 40~50년전의 服飾實態를 조사한 것이다.

韓國服飾의 民俗學의 研究가 論文으로 발표된 것은 1971년에 「濟州島 服飾의 民俗學의 研究」<sup>7)</sup>에 이어 「濟州島 通過儀禮服의 研究」<sup>8)</sup> 「濟州島民의 喪禮에 나타난 服飾」<sup>9)</sup> 「濟州島 女人들의 속옷에 관한 研究」<sup>10)</sup> 「우리나라 婚禮服의 民俗學의 研究」<sup>11)</sup> 「濟州島 갈옷의 實態調査에 대한 應用方案研究」<sup>12)</sup> 「韓國傳統 갈옷染色의 特性研究」<sup>13)</sup> 「道袍에 대한 史的 考察 및 民俗學의 研究」<sup>14)</sup> 등이며, 著書로는 民俗調査를 거쳐 광범위하게 服飾生活의 風俗을 다룬 「韓國服飾風俗史研究」<sup>15)</sup>가 1988년에 출간되었다.

(2) 調査對象

本研究의 調査對象地域으로는 人的交流가 가능한 곳이나 緣故地를 중심으로 되도록이면 土着民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택하였다. 각 道別로는 서울 외에 京畿道の 安城·江華, 江原道の 春川·江陵, 忠清道の 鎭川·陰城·公州, 全羅道の 全州·羅州·順天, 慶尙道の 安東·馬山·晉州 등 14개 地域을 택했고, 각 地域마다 몇몇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濟州島는 先行研究가 있어 생략했다.

本研究의 調査對象者는 現地 女子住民으로서 되도록이면 그 마을에서 出生했거나 成長한 土着民을 위주로 했고, 연령범위는 대략 60세에서 80세 전후까지로 했다. 高齡者일수록 오랜 經驗을 갖고 있으며 그들의 父母로부터 전해 들어온 固有風俗을 가장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이다. 被調査者는 총 192명이며 (<표1 참조>), 人的事項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3) 調査方法

本研究을 위한 조사는 1985년부터 1990년까지 여

름·겨울을 이용하여 계속 실시했다. 調査方法으로는 對象者가 전부 老人들이므로 個別 또는 少數集團으로 面談調査했다. 기억이 확실치 않은 老人들은 간혹 엉뚱한 答을 주기도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多數의 同一한 答에 따르거나 혹은 그중에서 기억이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사람의 答에 따랐다.

2. 庶民女服의 일반적 특징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래 조선조말까지 身分에 있어서 상하·존비·귀천의 二元的 構造를 갖고 있었다. 특히 身分觀念이 투철했던 조선조에 있어서는 이의 等威를 가리기 위해 많은 服飾禁制가 있었다. 물론 이의 對象者는 주로 下層階級을 이루고 있던 庶民들이었다.

全人口의 8, 9할이 넘는<sup>6)</sup> 庶民들에게 服飾은 단지 피부를 감싸는 被服 외의 다른 의미는 없었으며, 勞動이 생활 자체였기 때문에 外出服이나 儀禮服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고 입을 기회마저 드물었을

연령	조사년도	조사지역														계
		서울	안성	강화	춘천	강릉	진천	음성	공주	전주	나주	순천	안동	마산	진주	
60세 이상	'85	3	3	9												15
	'86	2			7	8										17
	'87	4					5	9	4							22
	'88	2								4	4	6				16
	'89	3											6	3	5	17
70세 이상	'85	4	6	3												13
	'86	2			5	4										11
	'87	3					4	6	5							18
	'88	2								3	7	8				20
	'89	1											4	4	3	12
80세 이상	'85	2	1													3
	'86	1			3	2										6
	'87	2					2	4								8
	'88	1								2	1	3				7
	'89												2	3	2	7
계		32	10	12	15	14	11	19	9	9	12	17	12	10	10	192

\* '90년은 조사된 내용 중 일부 재확인을 위한 조사였으므로 피조사자 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음.

<표 1> 피조사자의 연령분포

것이다. 따라서 日常服이 有一의 生活服이자 作業服이 되므로 그들에게 日常服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했다.

원래 빈곤한 데다가 까다로운 禁制에 얽매어 사실상 庶民層의 服飾은 服飾다운 것이 있을 리 만무했다. 修飾에 있어서는 물론 옷의 種類와 形態, 着衣法에 계속적인 제한을 받았고, 服色과 衣次에 있어서도 갖은 禁制가 있었다. 여자에게 있어서 袍制는 생각지도 못했고, 쓰개에 있어서도 장옷과 천의에 한했으며, 삼회장저고리는 입지 못했다. 紗羅綾緞의 비단옷이나 紋樣衣, 染色衣는 바랄 생각조차 하지 못했고 모시·삼베·무명 등이 고작이었으며 升數도 7,8升을 넘지 못했다.<sup>17)</sup> 이것이 곧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白衣民族으로 치칭하게 된 근본이 되었으며,<sup>18)</sup> 服飾文化의 발달을 저해하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sup>19)</sup> 服飾禁制의 구체적인 내용은 先行研究가 있어 생략한다. 따라서 庶民女服의 기본구조를 이루었던 것은 치마·저고리에 속옷으로 다리속곳·속속곳·바지·단속곳이 고작이었으며, 여기에 버선과 쥘신을 신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이와 같은 服飾制度는 1894년 甲午更張을 전후하여 開化思想의 고조와 함께 크게 轉換期를 맞게 되어 길이가 짧은 통치마가 나타났고, 그동안 중요시했던 속옷 역시 西歐의 영향을 받아 가지수가 줄어들었으며, 옷감도 人造絹이 등장하여 옷차림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도시의 一部 新女性에게 주로 나타난 것이며, 대부분의 一般婦女子들은 조선조말의 服飾制度가 계속 존속되어 우리의 옛것을 그대로 입는 가운데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직후에 이르러 속옷은 더욱 간소화되었고, 새로이 마고자와 속치마가 등장했으며, 고려시대까지 입었다가 조선시대에 사라졌던 두루마기가 재등장하여 우리 服飾의 기본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 III. 庶民女의 日常服의 各論

#### 1. 겹옷

##### (1) 저고리

저고리는 조선시대부터 上衣의 통칭으로 일컬었으며, 남자는 저고리 위에 袍를 입어 저고리가 속옷의 역할을 하지만 여자는 저고리차림 그대로가 겹옷이 된다.

##### ① 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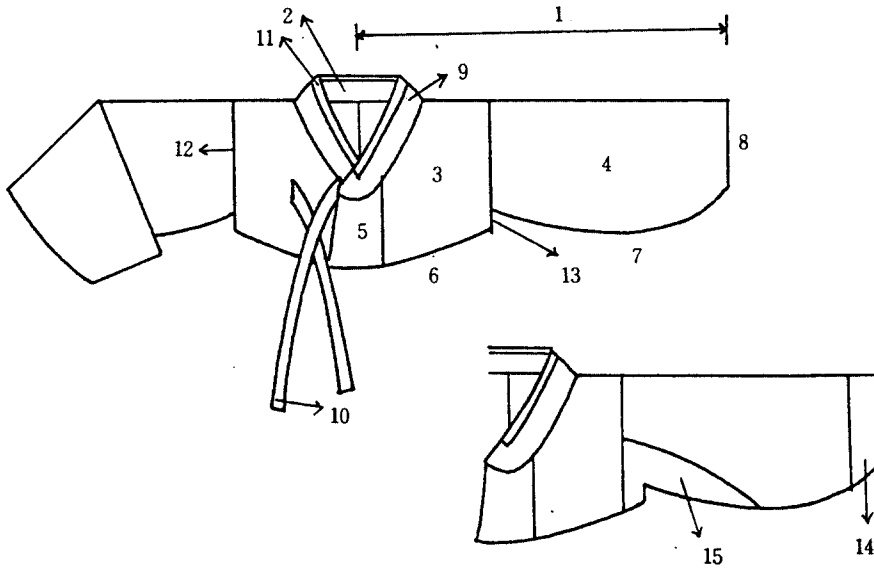
기본적으로 길, 소매, 앞, 옷깃, 고름, 동정으로 構成된다. <도 1>은 저고리 각부명칭을 地域別 方言으로 표기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저고리의 형태는 國俗을 벗어나지 않는 가운데 時體에 따라 길이나 線에 변화가 있어 왔다. 시대별 여자 저고리의 길이변화에 관해서는 先行研究로 미룬다. 특히 1920년대까지 20cm전후로 극히 짧았던 저고리가 1930년대에 와서는 36~37cm로 길어졌는데, 이런 형태의 저고리를 동저고리라고 했다. 원래 동저고리란 동옷[胴衣]이라 하여 남자가 입는 저고리를 가리키는<sup>20)</sup> 것인데, 여자 저고리가 남자 것과는 같이 길어지자 이처럼 불려진 듯하다. 그래서 여러 老人들도 異口同聲으로 '동저고리가 나와서 겨드랑이를 가릴 필요가 없었으니 얼마나 편하고 좋았다고...'라고 했다. 그러나 이렇게 긴저고리라 해도 사실상 허리선 위로 올라가게 되어 上衣로서는 짧은 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부인들이 남이 보는데 젖 내놓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이 짧은 저고리와 적지 않은 관계가 있는지도<sup>21)</sup> 모른다.

당코깃저고리는 1920년대까지 입었고 그 이후에는 보통깃이 나왔으며, 1940년대부터 저고리에도 적삼같이 고름 대신 단추를 달아 입은 이도 있었다. 그리고 庶民들은 민저고리나 반회장저고리만 입을 수 있었는데, 회장색은 주로 자주색이었으며, 중년층 이상에서는 깃과 고름은 자주색으로 하되 끝동은 남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고, 특히 과부나 喪中에 있는 이는 회장저고리를 삼가했다.

##### ② 衣次 및 構成法

저고리는 짓는 방법에 따라 겹옷·홀옷·핫옷으로 구별된다. 겹옷은 숨을 두지 않고 안팎감을 맞추어 짓는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겹저고리·박이저고리·깨끼저고리 등이 있고 주로 봄·가을에 입는다. 홀옷은 안감을 넣지 않고 한겹으로만 짓는 여름용 옷으로 특히 홀저고리는 적삼이라 일컬어진다. 그리고 핫옷은 숨을 두어서 짓는 옷의 총칭으로 숨저고리·숨누비저고리 등이 있어 겨울용으로 이용되는데,



<도 1> 저고리 각부 명칭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1	화장	화장	화장	화장	화장
2	깃고대	깃고대	고대기	깃고지.깃고디	뒷고디.고대기
3	앞질	앞질	앞길	질.앞판	앞길
4	등	등	등	등.원등결	사매
5	쇳	쇳	쇳	쇳	쇳
6	도련	도련	도련	도련	도련
7	벨.배래기	벨.배래기	배래기	배알.배래기	배알.배밀
8	부랭이	소매끝	부래기	소매갓.아구리	부리
9	깃	깃	깃	깃	깃
10	고름	고름	고름	고름.웃고라	고름
11	동정	동정	동정	동정	동정
12	진동	진동	진동	진동	진동
13	저드랑.겨드랑밀	겨드랑밀	겨드랑밀	저드랭이	겨드랑밀
14	끝동	끝동	끝동	끝동	끝동
15	호장	호장	결대기	무쟁이	호장

이 핫저고리를 전남에서는 '돛방'이라 한다.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 적삼, 늦봄과 초가을에는 모시 겹저고리, 이른 봄과 늦가을에는 명주 겹저고리, 겨울에는 명주 솜저고리나 솜을 얇게 두어 누빈 저고리 등으로 계절에 따라 옷감과 깃는 방법을 달리 하여 입기도 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일부 庶民에게만 가능했을 뿐이고, 대부분은 사철 모두 무

명을 많이 입었으며, 무명 솜저고리도 힘에 겨우면 겨울에도 무명 겹저고리를 두벌 겹쳐 입음으로써 추위를 이겼다고 한다.

船橋莊의 遺品 중에 특이한 저고리가 있다. 삼베 솜저고리인데, 소매부리 쪽에 약 5cm는 솜을 두지 않고 안팎감 부리 바느질도 안된 채 여유분만 두어 뒤집어 만들었다. 이는 소매부리를 접어 올려서 일하

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였을 것인데 實用的인 면에서 일반 庶民들이 흔히 지어입던 방법이라 생각된다.

## (2) 적삼

홀으로 지은 여름용 저고리로 술기를 두세번 곱쳐 박아서 울이 풀리지 않고도 가늘고 곱게 바느질하는 방법인 곱술로 처리하여 통째로 빨아 입을 수 있게 한 것이 構成上 특징이다. 보통 삼베나 모시, 무명으로 지어 입었으며, 어깨와 겨드랑이에 바대를 대고 동정은 제감으로 만들어 기에 대고 직접 눌러 박아 일일이 뜯지 않도록 했다. 그리고 고름 대신 대부분 매듭단추를 달아 입었다.

조선초기에는 汗衫<sup>26)</sup>이라 불렀다가 조선말기부터 赤衫으로 되었는데, 원래 저고리 밑에 받쳐 입던 밑받침옷이던 것이 마침내 겉옷으로 발전된 것이며, 이렇게 된 때는 壬辰亂 이후<sup>27)</sup>라 한다. 따라서 적삼은 겉옷으로 입는 경우와 속옷으로 입는 경우가 있게 되었다. 적삼은 길이가 짧은 데다가 여름옷이라 속옷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입으면 앞도련이 들들 말려서 간혹 젖가슴이 보일 때도 있었다고 한다.

〈도 2〉의 모시 등거리 적삼은 음성군 이금녀 할머니가 1950년대에 입던 것인데 庶民의 生活相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깃과 섶을 없애고 앞단에는 단추와 단추구멍이 있으며, 소매를 짧게 한 勞動服으로 남자의 조끼적삼과 비슷하다. 뒷깃에는 성근 베로 등바대를 크게 댄 것이 특징이다.



〈도 2〉 등거리 적삼(1950년대)

## (3) 치마

치마를 形態別로 분류하면 풀치마와 통치마가 있다. 풀치마는 폭을 다 붙이지 않고 양가장자리에 선단을 두어 둘러입게 된 것으로 꼬리치마, 자락치마, 폭치마, 긴치마라고도 한다. 통치마는 양쪽 선단이 없이 통으로 된 것으로 도랑치마,<sup>28)</sup> 몽당치마, 조끼치마라고도 한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풀치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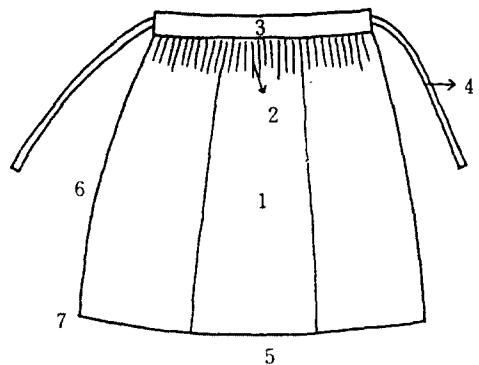
### ① 形態

치마는 폭, 허리, 끈의 세부분으로 構成되는 간단한 구조를 갖고 있으며, 넓은 치마폭에 주름을 잡아 허리에 붙이고 허리의 양끝에는 끈을 달아 가슴에 둘러 끈으로 매어 입도록 되어 있다.

〈도 3〉은 치마 각부 명칭을 地域別 方言으로 표기한 것이다.

치마는 저고리에 비해 큰 변화는 없으며 용도에 따라 길이와 폭에 약간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儀禮用은 길고 넓은 데 비해 日常用은 발목이 보일 정도로 짧고 좁은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치마를 치켜 입고 허리띠를 매면 종아리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여 속칭 두렁이,<sup>29)</sup> 두렁치마<sup>30)</sup>라고도 했다.

치마허리는 끈허리를 달아왔으며 통치마의 영향으로 근래에는 풀치마에도 어깨허리(조끼허리)를 달고 있으나 老人들은 여전히 끈허리가 편하다고 한다. 통치마는 일제시대 때 등장하여 처음에는 開化人이나 學生들만 입었는데 점차로 전파되어 1940년대부터는 널리 입게 되었으나 오래 유행하지는 못하고 대부분 풀치마를 입어왔다. 통치마 길이는 지금과 같이 짧지 않고 처음에는 발목정도였으나 날로 짧아졌으며,



〈도 3〉 치마 각부 명칭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1	폭	폭	폭	폭	폭
2	주름	주름	주름	주름	주름
3	말기	허리.말기	허리	허리.말	말기
4	끈.끄녕이	갈	끈	끈.끈타불	끈.치마고름
5	아랫단	아랫단	아랫단	치마단.치마갓	치마단
6	선단.옆단	옆단	선단.옆단	치마갓	자락
7	모서리	모서리	마구리	치마꼬리	모서리

통치마가 유행했던 때도 가난한 이는 따라 마련할 수 없어서 풀치마 길이를 짧게 하여 입기도 했다.

## ② 次次 및 構成法

치마감은 계절에 따라 삼베·모시·무명·유똥(뉴텐)·인조견·명주·양단·삼팔주 등이 쓰였으나 일반 庶民들은 주로 사철 무명이었다. 유똥은 1930년대에 크게 유행했고, 1940년대에는 인조견이 등장했으며, 1950년대부터는 인조견과 비단과의 交織이 나왔다<sup>39)</sup>고 한다. 허리감으로는 광목·옥양목이 주로 쓰였고, 여름에는 삼베·모시로도 했다.

치마는 홑으로 만들고 허리는 겹으로 했으며, 요즈음과 같은 겹치마가 등장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sup>40)</sup>라고 한다. 그리고 遺物에서 보면 허리 바느질법으로 허리 위로 두번 박음상침한 것이 간혹 있는데, 이는 日常服 겸 勞動服으로서의 견고성때문이었을 것이다.

## 2. 솜옷

우리나라의 氣候와 韓服의 構造上 우리나라 服飾은 여러 겹 껴입어 몸을 싸는 重着衣의 특징을 갖고 있다. 물론 조선조 후기 上流層에서는 솜옷이 防寒뿐만 아니라 치마 부풀림의 목적으로도 着用되었기 때문에 솜옷을 7~8겹이나 겹쳐 있었으나, 下流層의 庶民들에게 있어서는 솜옷은 防寒用으로 입을 뿐이었다. 이들이 입었던 솜옷으로는 속적삼·허리띠·다리속곳·속속곳·바지·단속곳 정도였고, 치마꼬리를 치켜올려 앞으로 끌어당길 경우 자연히 솜옷이 보이게 되므로 조선조 婦女子들은 겉옷만큼이나 솜옷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이는 바로 次元는 內衣文化를 형성하게 된 動機이기도 했다.<sup>41)</sup>

### (1) 속적삼

저고리 밑에 받쳐입는 홑으로 된 밑받침옷이다. 조선조 때는 아무리 三伏 더위라 해도 적삼 한겹만은 입지 않았으며, 또 맨저고리만은 입지 않고 반드시 속적삼을 입은 위로 저고리를 입는 것이 예의였다.<sup>42)</sup>

형태는 저고리와 같으나 동정을 달지 않고 고름 대신 매듭단추를 다는 예가 많으며 저고리보다 치수를 조금씩 작게 했다.<sup>43)</sup> 1950년대에 와서는 깃과 셔를 없애고 앞에 단추를 2~3개 다는 조끼적삼형으로 변했다.

속적삼감으로는 주로 무명, 광목, 옥양목이었고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도 쓰였으며, 인조견이 나오면서 인조견도 이용되었다. 그러나 속적삼을 따로 준비할 수 없는 이들은 여름 겉옷으로 입던 적삼을 속적삼으로 代用하기도 했고, 그나마 적삼도 없으면 동저고리 바람이었거나 겹저고리를 적당히 두벌 겹쳐 입어 속저고리가 속적삼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때에는 속저고리 고름이 늘어지지 않게 앞깃 속으로 찢러 넣었다.

1950년대까지도 대부분 입었던 속적삼이 셔츠의 등장으로 활용은 적어졌으나 요즈음에도 겉옷을 청결하게 보존하고 맵시를 살리기 위해 속적삼을 입는 사람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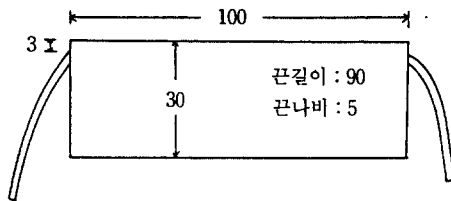
### (2) 허리띠

이것은 조선후기 저고리의 短小化 경향에 따라 저고리가 짧아지면서 치마허리를 가려주지 못하게 되자 저고리와 치마 사이에 드러나는 거드름이 살을 가리기 위해 생겨난 가리개용 띠로서 가슴띠 혹은 젓싸개라고도 한다. 얼마나 꼭 조여뻤던지 허리띠를 벗지도 못한 채 땀을 흘려가며 보리방아를 찧으면

몇알 튀어 들어간 보리에서 후에 싹이 난 예도 있었다고 한다.

보통 길이 1m, 폭 25~30cm 정도로 하고 양끝에 끈을 위로 바싹 올려 다는데,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모시나 고운 베로 홑으로 하고, 봄·가을에는 무명으로 겹으로 하며, 겨울에는 명주나 무명에 솜을 두어 누벼서 防寒도 겸하게 했으나 庶民層에서는 보통 무명을 사용했다. 防寒用은 보통것보다 폭을 넓게 하여 가슴부터 허리까지 충분히 두르도록 했는데, 배도 따뜻하게 가려진다고 하여 배두렁이<sup>34)</sup>라고도 했다.

가리개용 허리띠는 1940년대까지 두른듯 하며, 그 이후 셔츠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자취를 감추었다. <도 4>는 음성군 이금녀 할머니가 사용했던 허리띠의 實測圖이다.



<도 4> 가리개용 허리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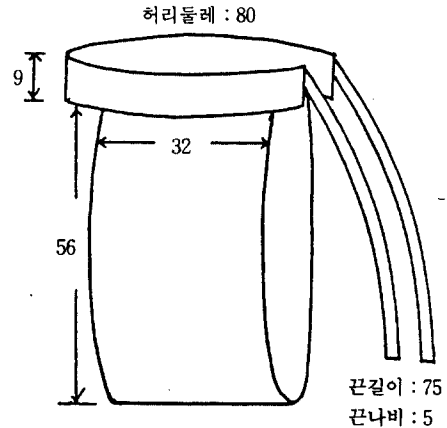
### (3) 다리속곳

下衣에 속하는 속옷 중 맨밑에 입는 것으로 속속곳이 커서 자주 빨 수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 입게 된 것이다. 형태는 홑이나 겹으로 된 긴 감을 반으로 접어 허리에 붙이고 허리 양끝에 끈을 달아 둘러매어 입게 되어 있다. 계절에 관계없이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며 여름에는 삼베로도 했다.

<도 5>는 음성군 이금녀 할머니가 復元製作한 다리속곳의 實測圖이다. 이 길이면 허리를 가슴까지 바싹 올려 입어도 가량이 밀로 대략 15cm 이상의 여유가 생긴다. 이 정도 분량이면 옷의 구속을 전혀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으며, 몸에 달라붙지 않아 통풍도 잘 되고, 用便時에도 일일이 허리끈을 풀지 않고도 쉽게 해결이 되었을테니 機能的·衛生的·能率的인 면에서 우수성과 지혜로움이 높이 평가된다.

속속곳이 없어진 후에도 속바지 속에 여전히 다리

속곳을 입었는데, 이는 바지가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다리속곳은 사루마다의 출현과 함께 사라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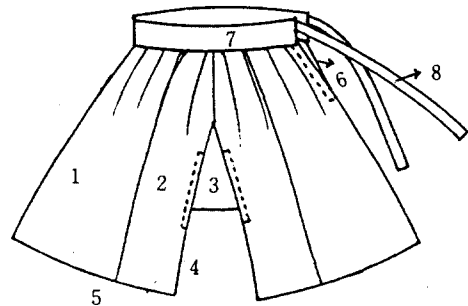


<도 5> 다리속곳(復元品 實測圖)

### (4) 속속곳

다리속곳 위에 입는 것으로 형태는 가량이통이 매우 넓고(50~60cm) 밑이 대어져 있으며 허리 양끝에 끈을 달아 둘러매어 입게 되어 있다. 단속곳과 비슷하여 속단속곳이라고도 하는데, 다만 단속곳보다 치수가 약간씩 작고 바대와 밑이 긴 것만 다르다. <도 6>은 속속곳 각부 명칭을 地域別 方言으로 표기한 것이다.

속속곳은 사철 홑으로 하는데, 살에 닿는 부분이 많아 계절에 관계없이 무명, 광목, 당목, 옥양목 등이 쓰였고, 삼베, 모시, 인조견, 울 등도 계절에 따라 적절히 이용되었다.



<도 6> 속속곳 각부 명칭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1	큰폭	큰폭	큰폭	큰폭	큰폭
2	사폭	사폭	사폭	작은폭	작은폭
3	밑	밑	밑	밑	밑
4	벨.배래기	벨.배래기	배래기	배알.배래기	배알.배밑
5	가랭이	가랭이	부래기	가래쟁이	가랭이
6	아구탱이	양굼	아구테	아구리	아굼지
7	말기	허리.말기	허리	허리.말	말기
8	끈.끄녕이	끈	끈	끈.끈타불	끈.속곳고름

(5) 바지

속옷으로서의 여자 바지는 단속곳 밑 속속곳 위에 입었는데 남자 바지와는 構造的으로 차이가 있다.

① 形態

가랑이통은 넓고(50cm정도) 부리는 좁으며(20cm정도) 밑이 달려 있고, 여기에 허리와 허리끈이 달려 있다. 그리고 밑의 構成法에 따라 앞뒤가 다 트인 형[開股袴], 뒤만 트인 형[後開股袴], 앞뒤가 다 막힌 형[前後閉股袴]이 있다. 앞뒤가 다 트인 형은 在來의 것으로 양편이 분리된 것을 함께 모아 주름을 잡아 허리에 단다. 따라서 양쪽 가랑이가 허리에서 합쳐지고 밑은 그대로 겹쳐 여머지게 된다. 경남 진주에서는 마치 휘항 2개를 한 허리에 단 것 같다고 하여 휘항중의라고도 한다. 원래는 허리가 치마처럼 뒤 여밈으로 달려 있었으나 1940년대부터 점차로 속속곳의 허리처럼 옆트임으로 변했다.<도 7 참조> 앞뒤가 다 트인 형은 用便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였으며, 밑나비가 20cm정도로 넓고 가랑이가 넓어서 다리를 벌리고 앉아도 밑이 벌어지지 않는 構成上의 특징이 있다.

앞은 막히고 뒤만 트인 형은 어린이 풍차바지와 비슷하다고 하여 풍차중의<sup>36)</sup>라고도 하는데, 1930년대 부터 입기 시작한 듯 하다. 그리고 앞뒤가 다 막힌 형은 요즈음 개량바지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근래에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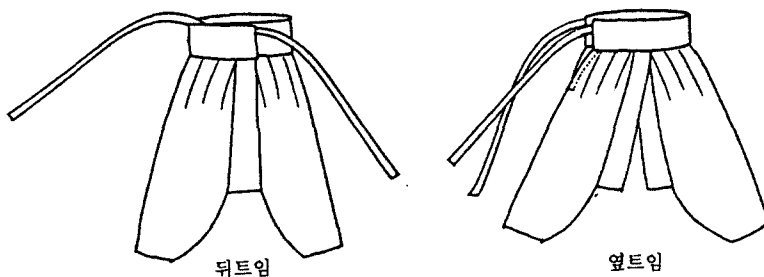
② 衣次 및 構成法

계절에 따라 홑바지, 겹바지, 누비바지, 핫바지 등을 지어 입었는데, 옷감은 주로 무명, 광목, 옥양목, 당목 등이었고 모시, 삼베, 광당포, 명주, 용 등이 계절에 따라 적절히 쓰였다. 간혹 무릎 아래에만 자미사, 은조사, 삼팔주, 명주와 같은 고급감을 덧대어 보이기 쉬운 부분만 장식한 것도 있다.

특히 홑바지는 고쟁이라고 하는데, 지방에 따라 고장이, 고장바지,<sup>36)</sup> 꼬장바지,<sup>37)</sup> 꼬장주,<sup>38)</sup> 꼬장중의<sup>39)</sup>라고도 불렀으며, 홑으로 지었어도 밑은 자주 비벼 빨아야 했으므로 바대를 대어 두겹으로 했다.

③ 살창꼬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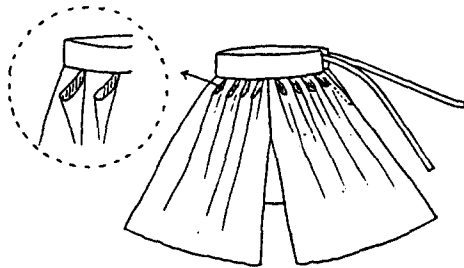
고쟁이 중에 주름을 잡아 허리에 달때 주름의 걸침분을 베어내고 안으로 말아감쳐 구멍을 내어 통풍이 잘 되도록 한 것이다. 보통 고쟁이는 부리가 좁



<도 7> 바지(앞뒤 다 트인 형)

은데 이것은 삼베나 모시 4쪽을 한쪽 가랑이로 하여 단속곳과 비슷하다. 경북 안동에서만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졌으나 충북 음성에서도 입었음을 조사 결과 알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두 지역에서만 입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도 입었던 곳이 또 있는지 여부는 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살창꼬장주를 안동에서는 가래고쟁이<sup>40)</sup>라고도 하는데, 음성에서는 앞뒤가 모두 터진 것을 가래고쟁이라 하고 뒤만 터진 것은 속곳고쟁이라 하여 속속곳이 없을 때 속속곳 대신으로 입었다<sup>41)</sup>고 한다. <도 8>은 증언에 의해 圖解한 살창꼬장주의 형태이다.



<도 8> 살창꼬장주

(9) 단속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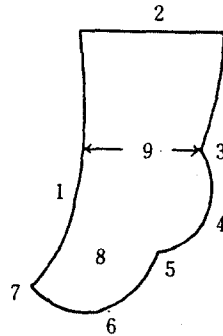
바지 위 치마 밑에 입는 것으로 속속곳의 형태와 같으나 가랑이가 더 넓고 크기가 더 크며, 길이는 바지보다는 길고 치마보다는 짧다. 單襪衣<sup>42)</sup>로 표기되며, 걸속곳<sup>43)</sup>이라고도 하고, 지방에 따라 다네[단의를 뜻함, 경북·전남], 단중우[단중의를 뜻함, 전북·강원], 다네치마[단의치마를 뜻함, 경남] 등으로도 불리운다.

원래 치마 밑에 입어 치마의 형을 정리해 주는 받침옷이었지만 평소 집안에 있을 때는 치마는 입지 않고 단속곳 차림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外衣로도 입었기 때문에 다른 속옷에 비해 비중을 크게 차지했다. 그러므로 가난하여 속속곳이나 바지는 없어도 단속곳만은 반드시 갖추었다. 지금도 속치마 대신 단속곳을 입는 老人도 있다.

단속곳은 홑으로 하는데 주로 여름에는 삼베나 모시를 이용하여 박이로 하고, 겨울에는 무명이나 광목, 옥양목을 이용하여 곱게 호아서 단을 풀로 붙여 지었다. 눈에 쉽게 띄는 아랫부분에만 향라, 숙고사, 은조사, 삼팔주 등의 화려한 옷감을 대어 지혜롭게 짓기도 했다. 1930년대부터는 속치마로 발전되어 서서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따라서 속치마를 단속곳이라 계속 부르기도 했다.

(10) 버전

버선에 대해서는 先行研究가 있어 여기서는 각부 명칭을 地域別 方言으로 조사한 것만 다루기로 한다.<도 9>



<도 9> 버전 각부 명칭

	경 기	강 원	충 청	전 라	경 상
1	수늑	수늑	수늑	시늑,물	수늑
2	목	목	목	목	목
3	뒤꾸머리	뒤꼬마리	뒤꾸머리	뒤꿈치,아슬개 질북이,질북아리	아슬개
4	뒷축	뒷축	뒷축	뒷축,뒤꿈치	뒤꿈치
5	홈	○	○	자슬기	바닥아슬개
6	바닥	○	바닥	○	배알,배아리
7	코	코	콧배기	콧배기,콧뎡이	콧배기
8	앞볼	앞볼	앞볼	앞볼	앞볼
9	호목	호목	호목	회목	회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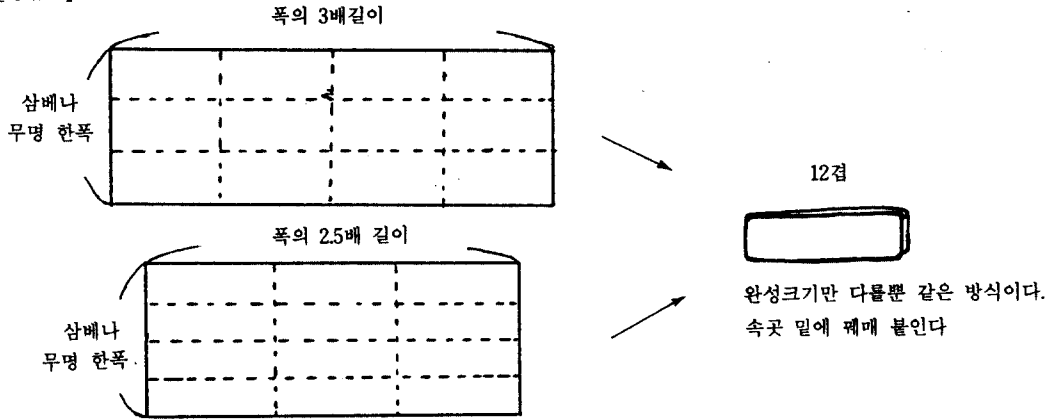
(11) 月經帶

出産이 잦았던 관계로 월경대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여자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다. 서답, 개집, 기저귀, 빨래, 걸레 등으로 부르기도 했으며, 여름용은 삼베, 기타 계절용은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헌옷을 뜯어 적당한 크기로 접거나 숯덩숭덩 누벼 사용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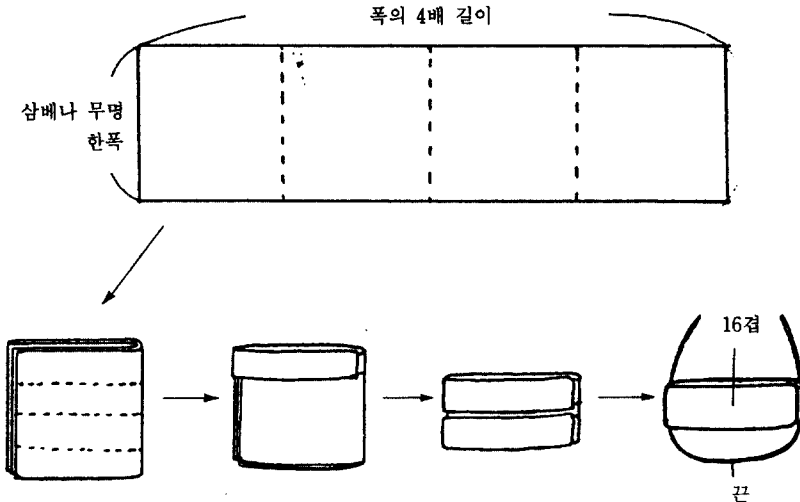
月經帶를 접는 방법은 옷감의 형태와 사람마다 방식이 달라 조금씩 틀렸으나 대략 다음과 같은 3종류로 나타났다. ① 무명이나 삼베 한 폭을 폭의 2.5~3배 길이 되게 하여 양쪽 푸서부분을 휘감치고 길이를 셋(또는 넷)으로 접는다. 다시 폭을 셋(또는 넷)으

로 접은 다음 양끝이 막힌 갈피 사이로 두번 뒤집는다. 그리고 속곳 밑 적당한 위치에 놓고 대당 꿰매어 붙인다. ② 무명이나 삼베 한폭을 폭의 4배 길이 되게 하여 길이를 넷으로 접는다. 그리고 폭을 넷으로 나누어 가장자리 한 쪽만 먼저 접어 옆이 막힌 길피로 뒤집은 다음 다른 쪽도 같은 방법으로 접어 뒤집는다. 다시 반으로 접어 갈피로 한번 더 뒤집는다. 그리고 가운데로 끝을 넣어 찬다. ③ 무명이나 삼베 한폭을 폭의 2배 길이로 준비한 다음 정사각형이 되게 길이를 둘로 접는다. 그리고 어긋하게 다섯으로 접는데, 가장자리 귀부터 먼저 접는다. 양끝에 고리를 달고 끈이나 고무줄을 끼워 찬다. 가운데가 10점으로 두툼하여 매우 편리했다고 한다.<도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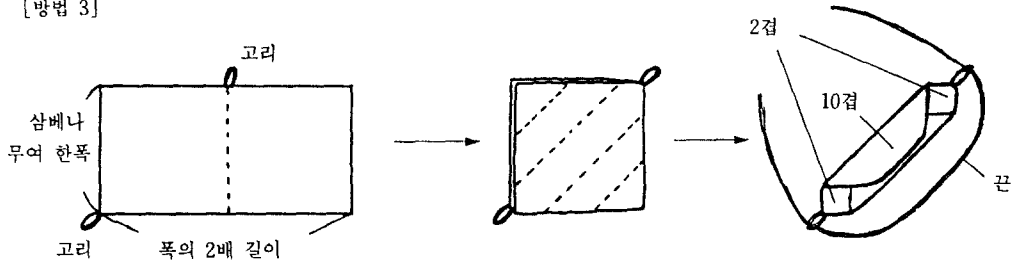
[방법 1]



[방법 2]



## [방법 3]



〈도 10〉 月經帶 접는 방법

## 3. 勞動服

庶民들은 생활 자체가 勞動이었으므로 日常服이 곧 勞動服이 되는 셈이다. 다만 노동에 편하도록 저고리 소매를 두세번 걷어 올리고 치마를 치켜 입어 허리띠로 묶거나 행주치마를 두르는 것이 고작이었다. 다만 밭에 나갈 때는 머리수건을 쓰고 조금 짙막한 치마나 낡은 저고리 또는 삼베 등거리를 입었으며, 몸뚱이 유행했을 때는 치마 대신 이를 입기도 했다. 비가 올 때는 샷갓을 쓰거나 도롱이를 입었으며, 경기도 강화에서는 假裝이란 것을 썼다<sup>40)</sup>

## (1) 작업용 허리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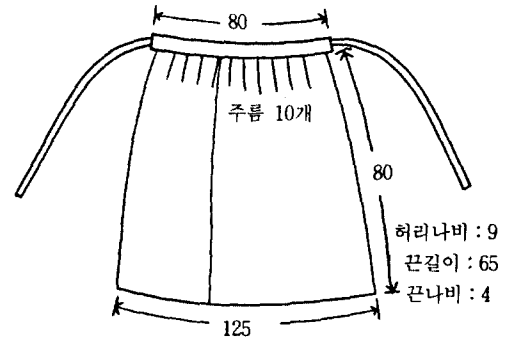
집안에서 일을 할 때 치마폭을 바깥 여며주기 위해 치마 위로 동여매는 긴끈으로 경기도에서는 괴아리띠(괴리띠)<sup>41)</sup>라고도 한다. 허리띠를 매면 옷매무새가 간편해지고 허리를 굽히거나 엎드려서 일을 해도 치맛단이 풀리지 않는다. 광목이나 옥양목으로 폭이 4~5cm, 길이가 허리둘레의 1.5배정도 되게 하여 허리를 둘러 앞에서 충분히 동여매 수 있게 했다.

## (2) 행주치마

주로 부엌에서 일할 때 치마 위로 덧입는 작업용 치마로 치마의 더러워짐을 방지할 뿐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긴 치마를 간편하게 정돈해 주기도 한다. 주로 흰색 광목이나 옥양목, 당목, 굵은 모시 등으로 만드는데 폭은 허리부분에 주름을 잡아 허리둘레의 3분의 2정도 둘러질 수 있는 크기로 하고 여기에 허리를 달고 허리 양끝에 끈을 다는 형태로 한다. 길이는 치맛단과 같게 한다. 〈도 11〉은 경남 마산의 김말순 할머니가 1940년대에 입던 행주치마의 實測圖

이다.

모시로 만들 경우에는 모시 4폭을 붙이는데 그중 앞쪽으로 오는 가운데의 2폭은 겹으로 하고 양옆의 2폭은 홀으로 하여 모두 6폭으로 構成하기도 했다.<sup>46)</sup>



〈도 11〉 행주치마(1940년대)

## (3) 머리수건

밭에 나갈 때는 햇볕을 가리기 위해 머리수건을 쓰거나 동여맸는데 무명 한겹으로 하여 요즈음의 타월크기만큼 되게 길이 80cm, 폭 30cm정도로 만들며, 가장자리의 울을 풀어서 술을 만들어 장식의 효과를 보이기도 했고, 특별하게 수건을 접어 모자같이 만들어 쓰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sup>47)</sup>

## 3. 저고리 치수 어림법

上古時代 사람들은 물건의 大小長短을 계측하기 위해 인체의 指長, 手長, 肘長, 尋長, 足長, 身長 등을 척도의 단위로 삼아왔다.<sup>48)</sup> 우리나라에서도 대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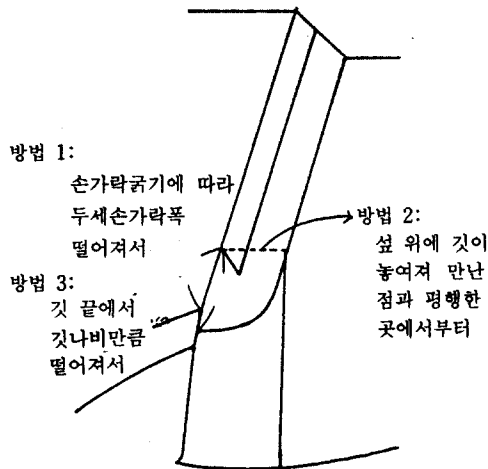
적으로 손쉽게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 뽕, 팔, 발, 길 등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五洲衍文長箋散稿」에도 보면 옷을 만들기 위해 치수를 잴 때 편이상 中指의 一節을 一寸이라 하고 겨드랑이에 서부터 中指 끝까지를 一尺이라 하는 등 신체의 一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sup>49)</sup>고 한다.

筆者는 옷을 지을 때의 치수 어림법을 조사한 결과 모든 老人들이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쓰고 있음을 알았다. 計測項目이 많고 까다로운 저고리를 택해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대의 치수는 장뽕(엄지와 장지를 벌린 길이)으로 한뽕<sup>50)</sup>이나 집게뽕(엄지와 검지를 벌린 길이)으로 한뽕<sup>51)</sup> 또는 등술에서 저고리를 반으로 접어 장지길이<sup>52)</sup>로 정했다고 하는데, 遺物에서 보면 고대의 치수가 대략 15~17cm이므로 짓는 사람의 손크기와 방식에 따라 적절하게 이용된 듯하다.

진동은 장뽕 한뽕에 장지 끝쪽의 한마디를 더한 길이<sup>53)</sup>로 하거나 장지 세길이<sup>54)</sup>로 하며, 소매통은 장지 세마디 닷뽕<sup>55)</sup>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장지 세마디란 장지 전체길이의 3배란 의미가 된다. 그리고 소매부리는 엄지 밑에서부터 장지 끝까지<sup>56)</sup>로 하는데, 엄지 밑이란 엄지와 검지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곳을 가리킨다.

동정을 달 때는 고름을 단 위부터 보통 검지와 장



<도 12> 동정다는 위치

지 두 손가락폭 떨어져서 달고 손가락이 가늘면 세 손가락폭(검지·장지·약지) 떨어져서 달기 시작하며,<sup>57)</sup> 쇄 위에 깃이 놓여져 만난 점과 평행한 곳에서부터 달기도 하고, 깃 끝에서 깃을 짓혀서 깃나비 만큼 떨어져 달기도<sup>58)</sup> 한다.<도 12>

#### 4. 着衣法

##### (1) 겉옷과 속옷과의 着衣關係

여러 벌의 옷을 껴입어야 하는 우리나라 服飾의 構造面에서 겉옷과 속옷의 着衣關係가 형성된다. 겉옷과 속옷은 서로 對應하는 말로 겉옷은 外衣 또는 表衣, 속옷은 內衣 또는 襯衣라 한다. 그러나 속옷의 의미를 엄격하게 구별하면 가장 속살에 닿는 內襯衣에 해당하는 속옷과, 겉옷과 內襯衣 사이에 받쳐 입는 中衣로서의 속옷이 있다. 사전에도 보면 「內衣」는 '속옷'으로 풀이되어 있는 한편 '內衣 속에 껴입는 內衣'라는 뜻으로는 「속內衣」로 되어 있다. 그리고 속속곳과 단속곳을 통틀어 「속곳」이라 하여 '속곳바람'이란 치마는 입지 않고 속곳만 입은 차림새<sup>59)</sup>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着衣過程은 가장 먼저 內襯衣로서의 속옷을 입고 그 위에 中衣로서의 속옷을 입으며, 마지막으로 外衣를 입게 된다.

우리나라 服飾構造의 또다른 특징은 下衣에 해당되는 옷들이 모두 허리가 있고 여기에 달려있는 두개의 허리끈으로 둘러매어 입게 되어 있는 것이다. 一般 庶民의 경우라도 허리띠·다리속곳·속속곳·바지·단속곳·치마 등을 입을 때 최소한 6회에 걸쳐 허리끈을 매어야 했기 때문에 고의 위치가 한 곳에 물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다.

##### (2) 着衣法

각 옷에 따른 着衣法을 着衣順序대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다리속곳을 가장 먼저 입는다. 構造上 한쪽 다리만 넣으면 된다. 허리를 짓가슴까지 치켜 올린 다음 두개의 끈을 교차시켜 허리를 둘러 고름 내어 묶는다. 앞뒤의 구별은 없으나 편이상 아귀가 왼쪽으로 가도록 입으며 고는 앞에 놓이게 된다.

② 그 위에 속속곳을 입는다. 역시 앞뒤 구별은 없으나 편이상 아귀가 왼쪽으로 향하게 입는다. 허리

끈을 매는 방법은 다리속곳과 같다.

③ 그 위에 허리띠를 입는다. 허리띠를 입지 않아도 속에 입은 다리속곳과 속속곳의 허리가 겨드랑이 살을 가려주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힘을 받지 못해 가슴을 납작하게 해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흘러내리기 쉽다. 허리띠는 겨드랑이 밑까지 바싹 추켜서 앞에서부터 뒤로 감아 돌리고 두 끈을 양 겨드랑이 밑으로 빼내어 힘껏 잡아당겨 졸라매어 입는다. 간혹 바지를 입은 위로 입은 이도 있으나 대부분은 속속곳 위로 입는다.

④ 그 위에 바지 또는 고쟁이를 입는다. 아귀가 뒤로 향한 在來의 것은 양 다리를 끼워 넣은 다음 치마입듯 돌려 입고, 아귀가 옆으로 향한 것은 속속곳과 같게 입는다. 편이상 아귀는 오른쪽에 오도록 입으며, 양쪽의 밑을 잘 여며 준다. 뒤만 터진 것은 밑이 포개져서 構成되었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앞뒤가 다 터진 것은 밑을 잘 여며 입어야 불편하지 않다.

⑤ 그 위에 단속곳을 입는다. 着衣法은 속속곳과 같다.

⑥ 그 위에 치마를 입는다. 치마를 입을 때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자락의 여밈방향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兩班은 왼쪽으로 여미고 庶民과 賤民은 오른쪽으로 여며서 구별했다<sup>60)</sup>고 한다. 그런데 경북 안동, 경남 진주에서는 이와 반대로 兩班이 오른쪽으로 여민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班常이 구별없이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고 하는 이도 있다. 또 전남 진도와 제주도에서는 兩班은 모두 오른쪽으로 여민다<sup>62)</sup>고 했다. 또 檀園의 「平安監司歡迎圖」와 蕙園의 風俗圖에서 보면 一般庶民들이 오른쪽으로 여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이 地域的인 특수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치마자락의 여밈에 따라 班常을 엄격히 가리게 된 것은 1900년경부터<sup>63)</sup>라고 한다. 한편 조선시대 薰色과도 관련이 있어 男人이 오른쪽으로 여몐다<sup>64)</sup>는 의견과, 老論계열은 왼쪽 南人계열은 오른쪽으로 여몐다<sup>65)</sup>는 異見도 있다.

⑦ 그 다음으로 속속삼을 입는다.

⑧ 그 위로 저고리를 입는다. 여기까지 着衣가 되면 통이 넓은 속옷들에 의해 臀部가 부풀어져서 항아리형의 실루엣을 表出하게 되니 이는 곧 下厚上薄의 美라 하겠다.

⑨ 그 위로는 필요에 따라 허리띠나 행주치마를 두르기도 하고, 간단한 작업을 할 때는 치마자락을 치켜 올려 앞으로 끌어 당겨서 허리끈 밑으로 돌돌 말아 넣기도 한다. <도 13>은 이러한 방법으로 着衣가 완성된 狀態라 하겠다.



<도 13> 庶民女の 日常服의 着衣狀態

#### IV. 結論 및 提言

본 연구에서 얻어진 몇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日常服은 다른 분야의 民俗처럼 각 지역마다 두드러진 차이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유는 服飾은 外形的으로 표현되는 까닭에 타 지역과의 접촉을 통해 영향을 가장 밀접하게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② 服飾의 명칭과 치마 着衣法(특히 여밈방향)은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볼 수 있었다.

③ 경북 안동과 충북 음성에서는 살창고쟁이라고 하는 특이한 형태의 옷을 입었다. 실제로 이 두 지역에서만 입었는지, 또 이번 조사지역 외의 타 지역에서 특별히 입었던 특이한 다른 옷이 있는지의 興否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할 과제이다.

④ 저고리 치수 어림법인 寸尺法을 아직까지도 老人層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 [參考文獻]

- 1)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출판부, 1975, p.16.
- 2)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아세아문화사, 1973, p. 3.
- 3) 홍매랑, 조선의복제도연구, 을유문화사, 1948, p. 21.
- 4) 村山智順, 朝鮮의服裝, 조선총독부, 1927(昭和 2년).
- 5) 민속종합보고서, 제1책~12책, 문화재관리국, 1969~1981.
- 6)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7책(의생활편), 문화재관리국, 1986.
- 7) 고부자,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71.
- 8) ———, 단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0.
- 9) ———, 제주도연구 제2집, 1985.
- 10) ———, 제주도연구 제3집, 1986.
- 11) ———, 한국복식 제7호,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1989.
- 12) 손경자, 석주선기념민속박물관 개관6주년기념 제5회 학술세미나, 1987.
- 13) ———, 제7회 아시아복식학술회의, 1988.
- 14) 조근희, 한국의류학회지 12권 1호, 1988.
- 15) 조효순, 일지사, 1988.
- 16) 김동욱, 조선중후기의 여복구조, 이조여성연구, 숙대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6, p.316.
- 17) ———, 상계서, p.315.
- 18) 유희경, 전계서, p.269.
- 19) 김동욱, 한국복식사연구, p.332.
- 20) 신기철·신용철, 새 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79.
- 21) 홍매랑, 전계서, p.37.
- 22) 전남 순천 이씨 할머니, 나주 김선분 할머니 증언.
- 23) 강원도 강릉시 소재, 중요민속자료 제5호.
- 24) 약학레범, 제9권 처방관복도설조.
- 25) 조효순, 조선조후기 여성복식과 개량논의, 복식 4호, 1980, p.5.
- 26) 경남 진주 김복실·이순이 할머니 증언.
- 27) 경기 강화 오칠녀 할머니, 충북 진천 김씨·유씨 할머니 증언.
- 28) 경남 마산 김남순 할머니, 경기 강화 오태경 할머니 증언.
- 29) 서울 윤점순·유씨·이득녀 할머니 증언.
- 30) 충북 음성 이금녀 할머니, 경기 안성 오소화 할머니 증언.
- 31) 조효순, 한국복식풍속사 연구, p.222.
- 32) 유희경, 전계서, p.344.
- 33) ———, 저고리와 친의류, 한국의 복식, 문화재보호협회, 1982, p.213.
- 34) 경기 안성 황점례·이승녕·김순님 할머니 증언.
- 35) 경남 진주 김복실·이선녀 할머니 증언.
- 36) 홍매랑, 전계서, p.29.
- 37) 경북 안동 김남혁 할머니, 경남 마산 조선실 할머니 증언.
- 38) 경북 안동 강씨·고선희 할머니 증언.
- 39) 경남 진주 이씨 할머니 증언.
- 40) 경북 안동 김남혁·강씨 할머니 증언.
- 41) 충북 음성 이금녀·김순님·황씨 할머니 증언.
- 42) 김동욱, 전계서, p.348.
- 43) 홍매랑, 전계서, p.29.
- 44)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제17책(의생활편), 문화재관리국, 1986, p.58.
- 45) 경기 안성 김순님·조연산 할머니 증언.
- 46) 서울 안금지 할머니 증언.
- 47) 경기 안성 이승녕 할머니 증언.
- 48) 윤장섭, 한국의 영조척도, 대한건축학회지 19권 63호, 1975, p.2.
- 49) 이규경, 오주연문장전산고, 권49, 지척변증설.
- 50) 충북 음성 이금녀·황씨 할머니 증언.
- 51) 충남 공주 이진례·박초순 할머니 증언.
- 52) 전북 전주 두분녀·김씨 할머니 증언.
- 53) 충북 음성 이금녀·황씨 할머니 증언.
- 54) 전북 전주 두분녀·김씨 할머니 증언.

- 55) 전북 전주 두분녀 · 조말례 할머니 증언.  
 56) 충북 음성 이금녀 할머니, 전북 전주 조말례 할머니 증언.  
 57) 충남 공주 이진례 할머니 증언.  
 58) 전북 전주 두분녀 할머니 증언.  
 59) 신기철 · 신용철, 전계서.  
 60) 한국민속대관, 제2권(일상생활 · 의식주), 1980, p.153.  
 61) 유희경, 전계서, pp.508~509.  
 62)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p. 102.  
 63) 김미자, 치마 저고리의 차림새에 관한 연구, 한국복식학회 제10차 추계 학술발표, 1988.  
 64) 경북 안동 권망한 · 김갑순 할머니 증언.  
 65) 고부자, 우리나라 혼례복의 민속학적 연구, p. 105.